

■ 동문장학재단의 설립 의의와 현황 ■

경희정신과 동문의 연결체

보도 기획

모교에 대한 애정의 일환으로 동문장학재단이 마련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한창 진행중이다.

이 동문회가 실질적으로 학교, 후배들과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친목단속성격을 넘어서 동창(문)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중 동문총회를 통해 모교원 총1억1천만원의 기금과 단순한 학과동문장학금의 차원을 넘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계속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동문장학재단이 경제학과와 학대 동문장학재단의 설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월28일 전제교수회의에서 조영식총장이 계획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과가 실시할 경우 “동문들의 애교심과 경희정신을 고취하고 후학들의 학문의욕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이 좀 더 구체성을 띄게 됐다. 이에 대해 많은 학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학의 재정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학금지급체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학재단의 형식을 띄지는 않지만 법대, 의과, 체대 등

이 동문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법대 법학과의 경우 총 장학금이 7천5백만원으로 1년에 2회 정도 있는 ‘법집회’ 때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장학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4명을 선발해 2.3백만원 정도를 전달하고 있다. 또 체대의 경우 1천5백만원의 장학금으로 성적에 관계없이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학과생활을 성실한 학생에 한해 양캠퍼스 4명에게 매학기마다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체대동창회는 기금 마련을 졸업생의 동문회 가입비와 교수월급, 회장단 모금 등으로

금모금방법이 동문회장단이나 몇 명의 고액기증 뿐 아니라 졸업생 기금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어 특이하다. 반면 약대는 89년 2월부터 약대 김신규학장의 발의로 기금모금을 시작, 참가자가 3백80여명에 이른바. 이는 88년 1학기부터 20명내외의 성적우수자에게 학기당 4백60만원정도 지급해왔으나 이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작년 12월까지 총 1억5백만원 모금했다.

김신규 약대학장은 이번 기금 마련에 대해 “완전히 떠난 졸업생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줘 고맙다”며 이

장학금의 수혜자와 액수는 많지 않을 수 있고, 동문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한 본교출신 선배와 재학생들의 자연스럽 유대감 형성이 가능하며 애교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희인’의 긍지를 높일 수 있고, ‘경희’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전학과가 장학재단이 설립될 경우 장기적으로 볼때 본교에 다니는 학생은 전혀 학비가 들지 않고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 최소한 본교만이라도, 완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장학금은 단순히 학비면제의 차원을 넘어 학업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선배후배간의 공동체 의식과 ‘경희가족정신’을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동문장학금의 확충과 장학재단의 설립은 정부의 사회학원기조와 사학재단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경제과 재단설립후 활성화 추세 69년 졸업생 학생저축금이 계기 사학재단 열악한 재정 해소 기여

창당하고 있다. 경제학과 동문장학재단의 경우 89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2학기 중 회장단과 일부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금이 크게 증액, 1억1천만원의 학문의욕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해 계획이 좀 더 구체성을 띄게 됐다. 이에 대해 많은 학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학의 재정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학금지급체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대에 두고 졸업, 장학금으로 이 용하다가 장학기금을 모으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시작했다. 기

수 있을 것이다. 학사일정, 대외연락 약화로 인한 대외장학금의 계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문장학금재단이 늘어나는 장학금수혜자의 확대와 함께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는 데 동창들이 장학재단을 추진하는 의의가 있다. 대외 장학금 수혜자의 감소는 학내 사정에도 대외가 많이 늘어난 만큼 단위학교의 자본감소를 들 수 있으며 또한 이름난 내기 위한 ‘장학금’이 자연감소하는 경향도 있다.

(전민환 記者)

인상을 자체에만 집착해 근본적 문제 해결 미흡

▼해마다 이맘때면 학생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등록금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88년 등록금자율화조치 이후 각 사립대학들은 매년 등록금문제로 한 차례씩 혼란을 치루곤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인상을 확정’이라는 부분이 해결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만다. 학생 대표들이 긴 시간동안 준비한 것들이 인상을 하나에 묻혀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주 이해타산적이고 관성적으로 인상을 대해서만 집착한 나머지 협상에서의 정정사와 과정상 문제점 기본적인 것에 무관심한 현실이다. 올해의 등록금협상 상황만 보더라도 학교측은 언제나 ‘현실적 어려움’이란 부분만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학

생대표측은 ‘명확한 규정력을 가질 수 있는 원칙’을 제기해 왔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등록금협상은 이전의 전철을 밟고 말았다. 일반 학생들은 기존에 그래왔던 것처럼 단지 돈 얼마를 더 내느냐 덜 내느냐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는 듯하다. 등록금 협상에서 즉 예산편성에서의 학생참여라는 대전제에 무관심한 채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관심한 대중의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의 이러한 모습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91년 학교측과 학생대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최종 가결에서 보낸 ‘건설적계정은 등록금제원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이후 공동노력한다’ 등의 아

주 애매모호하고 약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위의 부분들은 작년의 합의사항에도 있었지만 잘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학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결위의 등록금협상은 이런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이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문제의 해결없이 인상을 자체에만 집착한 듯한 인상을 준다. 등록금협상이 일반학생들의 관심·지원을 받고 진행되려면 예결위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문제점 치유에 협상의 집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서울캠퍼스 “자주경희 총학생회”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등록금협상등 급격한 사업들을 진행해 온 ‘제23대 자주경희 총학생회’가 오는 28일 진군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진군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총학생회 총선선 선포와 결의는 각과·단과대학 학생회의 91년 총선선과 사업계획에 기초가 된다.

제23대 총학생회의 총선선은 크게 학원자주화노선, 투쟁노선, 조직노선, 사상운동노선등 4가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자주화노선(학자노선)

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주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사업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재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위)내에는 교육·교무·교과부분을 담당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와 학내 제반 복지문제에 대해 관여하는 인권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있다.

제23대 총학생회는 기간의 학자사업이, 과단위로 개별화됨에 따라 발생한 전체적 통일성과 지향점 인식공유가 미비한 오류를 극복하며 올해의 기본방향을 2 학자추내 사무국과 교심위대표 2인의 중앙단위와 법대·약대 등 단과대학 2인, 문리대·정경대에서 과추제 2인으로 구성되는 학자소위원회체제를 확립 시키고자 한다.

수원캠퍼스 “민족자주 총학생회”

제23대 총학생회 진군식이 지난 20일 체육과학대학관 앞 혁명광장에서 있었다.

총학생회는 91학년도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 모든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사업기조를 조직적·과정, 투쟁적·과제 민주대연합 형성에 대한 과제로 분류하여 펼쳐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조직적 과제로 지도역량의 구축, 대중적 기반확성, 학생회사업의 대중화라는 문제를 내 놓고 있다. 먼저 총학생회는 지도역량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 운영위의 총학생회 집행부 회의를 강화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중적 기반의 숙성을 위하여 각 과학생회 질서체계를 세우기로 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단과 및 학과 운영위까지 포괄하는 확대 운영위의 강화, 각 학생회 운영위에 건설 각학과 학년 과대표까지 포함하는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를 조직하는 사업

위의 학자내용 정립 △중앙지원의 학자내용을 중·하부에서 흡수하는 적절한 방법모색으로 설정했다.

2. 투쟁노선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의 실현이라는 대전제속에서 민주연합전선구축과 중·하부대대강화를 중점 정책목표로 한다.

투쟁노선의 핵심사항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최대

제책을 위한 남·북·해외동포 1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팀스프리트 훈련반대와 콘크리트 장벽 철거투쟁 △남북한 평화협정체결투쟁을 통한 조국통일투쟁.

3. 조직노선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현재 총학생회조직체계는 10개의 집행부와 학자추내 교심위, 인복위, 예결위등 특별위원회와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등이 있다.

올해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학

참고있었 것 중에 중하부대대의 강화, 즉 학생회의 강화와 간부력 신동의 조직적 과제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사상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사상운동노선 실현을 위해 △경희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실시 △‘경희민주운동사’ 편찬 △대동제를 ‘자주경희’로 개칭, 학내구성원 모두가 참석하도록 하며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에 대비하여 중앙과 학생회차원의 ‘취업대책위원회구상’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총학생회의 총선선은 상·중단위에서 제시되고 중·하부대에 속하는 단과대학·과학생회 등에서 각자의 현실에 맞는 부분을 취사·선택하는 형식으로 수립되게 된다. 28일 총학생회 진군식에서는 총선선 선포와 일반학생들의 형식적인 인준을 거처하며 이후 사업에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記者)



양캠퍼스 총학생회 '91 사업전망

민자당 정권을 퇴진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앞당기자. 라는 구호 아래, 반미 자주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반파소 민주화투쟁을 위해 노태우 퇴진장국조성에 힘쓰고 자주통일투쟁의 전개 방안으로 창구단일화 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장안 함의로 나아가 불가침선인 체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원자주화 투쟁(이하 학자)의 사업기조로서 이전까지의 경제 복지적인 측면만의 투쟁이 아닌 대학 전반적인 사항들을 학교, 학생, 교직원

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 대연합 형성을 위하여 먼저 성남 민주시민단체장 연설회의 참여를 통하여 성남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용인지역 민주단체장 연설회의 건준위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상에서와 같이 91학년도사업의 총선선은 예년과 같이 소수의 간부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광범위 하게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으로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91년도 상반기 총선선은 수립과정에서부터 분임토의에 기초한 즉, 총학생회정책위원회에서 그 기초를 잡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하부에 내려가서 토의한 후 그것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정책과 사업의 골격을 잡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임토의에 기초한 사업의 수립은 등록금 협의에서도 나타나 등록금 협의후 서울캠퍼스의 총학생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분임토의를 하여 학내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등록금 협상에 반영하려고 한 움직임들이 독특하다. 대가협 구성과 더불어 학생회의 골간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건설도 올해의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임홍준 記者)

“학생회 사업 대중화 선언” 反독재·민족자주 위한 특위 강화

회(이하 학추위)를 과 단위까지 조직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학생회 사업의 대중화를 위해 모든 사안에 대해 분임토의에 기초한 총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그다음 항목으로서 투쟁적 과제로는 반미 반독재 조국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들이 같이하는 의미에서 ‘대학자치 협의회’건설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학자사업의 하부 토대강화를 위한 지속적 학자사업 주체의 발굴 자주화민 건설을 위한 학자행정의 전반적 참여 학자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정치투쟁과 잘 배합하기 위한 학자관철이 올바른 교양을 통한 완결적 이념체

수강신청 정정 및 최종수강신청

1. 학과별로 사무실에 비치된 제1차 수강신청 내역(수강신청내정)을 확인·정정하고, 복학생을 포함한 수강신청 누락자는 반드시 이 기간에 수강신청해야 함.

- 기간: '91. 3.25(월)~28(목)
- 장소: 각 학과 사무실
- 방법

가. 수강신청 정정: 폐강과목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다른과목을 추가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정정용 OMR CARD 및 학생보관용 수강신청 정정원을 작성한 후, OMR CARD만 제출.

나. 최종 수강신청: 수강신청용 OMR CARD 및 학생보관용 수강신청정원을 작성한 후 OMR CARD만 제출하며, 이 기간 외에는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에 대한 정정을 절대 할 수 없음.

4. 폐강과목

이수구분	학과	학년	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비고
공통교양	체대	1	민속통일론	2	노진백	
교양교양	법대	1	시반어이	3	박희지	
전공선택	정경대	2	프랑스문학사	3	최정성	
	화	4	유기화학	3	주동훈	
	화	4	원자장론(영)	3	유지정	
	화	4	원자장론(독)	3	김동훈	
	화	3	중금속화학	3		
자유선택	전학과	전학년	중금속화학	2	생기숙	

5. 비고
폐강과목 이외의 교과목에 대한 취소 및 추가 신청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며, OMR CARD 작성시에는 반드시 수성색인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에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 이내	○매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장기	85. 8. 1 이전대출자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3년 이내
85. 8. 1~89. 12. 21 대출자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 이내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 납입
학자금	89. 12. 22 이후대출자	원금: 거치기간(제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매3개월 또는 매 6개월단위로 납입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임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후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의 제도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지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사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심분 감안 하시기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동아시아 연구회 회원모집 안내

- 연구회 목적
동아시아연구회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를 창도하고 준비하는 순수학술연구단체로서 학문적 연구와 인적 교류의 확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더 나아가 지역통합을 겨냥하여 주요 동북아 구성국가를 중심으로한 지역연구(Area Study)를 행하며,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각 국가를 직접 현지답사하여 실증적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통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회원자격
정회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및 학위취득자
준회원: 본회와 뜻을 같이하는 재학생
- 회원특전: 방학기간중 연구대상지역 답사시 최우선적 자격부여
- 연구회실적: 1990.2월 대만답사, 1990.7월 일본답사, 1991.8월 중국답사 예정
- 연락처: 961-0216(한성미 조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연구회